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탈북대학생들(맨 앞줄)이 4주간의 EDR 교육을 마치고 각자의 창업업체에 대한 사업발표회를 18일 가졌다

보스톤서 교육받은 탈북 학생들 “내 가치는 무한대”

보스톤 비영리단체 탈북학생들 기업가 정신 교육
보스톤 등지에서 교육통해 미국진출 자신감 키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에서 한달간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탈북 대학생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고 생각했다. 생애 한 순간 목숨을 걸고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

한 이들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케임브리지 소재 EDR 교육장에서 만난 이들은 4주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든 신규창업체에 대한 사업발표회를 18일 가졌다. 화장품업체, 애견카페, 북한만두집 등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 영어로 발표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준급의 뛰어난 영어실력을 과시했고 영어가 서툰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발표 내용을 영어로 적어 이를 읽으며 발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만약 이들이 탈북대학생들이라 사전에 귀뜸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의 명칭 앞에 ‘탈북’ 이란 두글자가 붙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사실 이들도 >>8면으로 계속

연방하원 도전 당고 막판 여론조사에서 선두 달려

29%가 부동층 막판 선거 유세가 판세 좌우
2위 기포즈 및 이탈리아과는 6% 근소한 우위
50% 당고에 호감 보여 다른 후보와 큰 격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하원에 출마한 당고(33) 후보가 민주당 경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글로브와 유매스(UMass)로웰의 23일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당고 후보는 550명의 응답 유권자 19%의 지지를 이끌어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당고 후보는 각각 13% 지지를 받은 루퍼스 기포즈 전 네델란드 대사, 바바라 이탈리아인 주상을 6% 차이로 앞서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0% 이하에서 치열한 각축을

대니얼 고	19%
루퍼스 기포즈	13%
바바라 이탈리아인	13%
로리 트레헨	8%
주아나 마티어스	6%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저가
보스톤 출발 인천행항공권 \$990 부터

미서부 원주 7박8일
1인 \$750~

IACE TRAVEL 617.424.8956

뉴스타 부동산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뉴햄프셔 한인회 광복절 기념 행사 가져

조은경 회장, "역사 기억하고 기록하고 연구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한인회가 주최한 제 73회 광복절 기념식이 보스톤 총영사관 후원으로 11일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1905년 러일강화조약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했던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된 포츠머스 인근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들이 광복을 기념해 의미를 더했다.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회장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참가자는 뉴저지 주에서 사는 80대 한인동포였다. 딸이 살고 있는 뉴햄프셔에 방문하였다가 신문에 광복절 기념식 공지를 접하고 어린 손자까지 데리고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동포는 이날 아침 보스톤코리아에 전화해 광복절 기념식장이 그린랜드교회인지 재차 확인할 정도였다.

기념식장 입구에는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김구 선생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사진과 독립의 염원을 담아 남겼던 어록을 담은 포스터가 전시됐고 식장 내부에는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사에 대한 영상

물들이 방영되었다.

광복절 기념식 1부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조은경 회장은, "우리 역사의 증인들은 사라져 가고, 우리역사의 단편들은 왜곡되어 가고 있다"며 친일파들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한반도 분단의 역사 등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회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 해 경축사 중 주요 내용을 전달하였고, 외국인 참가자들과 2-3세 동포들을 위하여 영문판 경축사의 일부도 대독하였다.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한윤영 고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세번 외쳤다. 한 고문은 12살 소년이던 1945년 감격적인 광복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소회를 전하며, 힘차게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은 한인회에서 준비한 곤드레밥과 갈비탕 등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광복절 기념 친선 탁구대회를 진행했다. 우승은 이날 1부 기념식 사회를 맡았던 그린랜드 감리교회의 조은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날 한인



뉴햄프셔 한인회가 주최한 제 73회 광복절 기념식이 보스톤 총영사관 후원으로 11일 개최됐다

회 고문단 (한윤영, 김섭, 박선우)은 광복 73주년 기념 선물로 휴대용 손톱깎이 세트를 참석자들에게 증정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조회장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한인 동포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조국의 역사를 알고 자신의 뿌리를 아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hsb@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광복절 기념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광복절 기념행사가 로드아일랜드 CCRl Warwick Campus 의 Bobby Hackett Theater 에서 8월 11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00여명의 한인들과 한국전 참전용사 및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 미국인들이 참석했다.

국민의례 후 이재영 회장은 "일본에서 해방된 조국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음을 감사" 했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권성환부총영사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광복절 행사를 격려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충시 전한인회회장의 만세 삼창으로 기념식을 마쳤고 오정희 씨가 이끈 국악 공연단과 한국음식 부페로 저녁식사를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덴고 여론조사 1위, 호감도에서도 50% 최다 당선 유력

▶▶1면에 이어서

별이고 있다. 한 때 선두주자로 각광 받았던 로리 트래헨 후보는 8%, 주아나 마티어스 주 하원의원은 6% 그리고 알렉산더 캔들러 전 미군정보분석가는 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의 후보 아비지트 다스, 제프리 불링거, 레오나드 골더, 보과 말론 등은 2%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무려 29%여서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앞으로 1주일간의 최종 선거유세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60%에 달했었다.

10명중 9명의 후보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관심이 없거나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덴고 후보만은 예외였다. 응답자의 단 16%만 그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했으며 약 50%가 덴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9%의 부동층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후보를 몰라서가 아니라게 글로브의 분석이다. 거의 5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최소한 한 명의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30%의 유권자가 선거 후보진영으로부터 방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이중 덴고 후보의 선거본부 이번 여론 조사에서 다른 여느 후보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과 전화로 접촉했다. 단지 루퍼스 기포즈, 바바라 이탈리아 후보만 그의 선거본부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

부동표심의 대부분은 향후 TV광고, 선거본부의 전화, 그리고 집으로 배달되는 후보 홍보용지를 보고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이 부분은 선거본부의 선거자금의 향배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많은데 덴고의 경우 다른 후보의 2배가 넘는 3백만불이 넘는 선거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브가 인터뷰한 허드슨 거주 베라 네트 씨는 덴고 및 기포즈 선거본부의 전화를 받았으며 둘 다 좋아하지만 덴고를 찍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어딜 가도 덴고의 사인이 붙어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연방 하원 선거에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은 지난 1998년의 일로 당시 마이클 카푸아노 후보가 23%의 지지율로 당선됐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 승리한 후보는 오는 11월 6일 총선에서 공화당 단독



연방하원에 출마한 덴고(33) 후보가 민주당 경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출마자인 릭 그린과 경합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리 후보의 당선은 확정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매사추세츠 선거의 치명적인 장애물로 나타났다. 73%의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맞서는 후보가

필요하며 50%의 유권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뽑았다. 무려 80%의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b@bostonkorea.com

외교부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 명단 공개

8월 27일까지 재외동포들의 의견 수렴후 9월 확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외교부가 '세계한인의 날' 에 정부포상을 수훈할 재외동포에 대해 공개검증을 위해 후보명단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포상을 한다. 이에 포상 후보자를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세계한인의 날에 정부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수는 총 9명. 이중 재외동포 단체는 10개다. 공개검증 기간은 8월13일부터 27일까지다. 외교부 재외동포과 이메일(nrbaek11@mofa.go.kr)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해 외교부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종 수상 여부 및 훈격은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행정자치부 추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9월 중 최종 확정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민감한 아시안피부 한인 피부 전문의가 땡긴다

보스톤메디컬센터내 아시안스킨센터 정혜진 교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에 아시안들의 피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아시안스킨센터(Asian Skin Center)가 설립됐다. 보스톤메디컬센터(BMC) 산하 아시안스킨센터는 피부과 전문의 정혜진교수가 아시안들의 피부 진료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다.

정교수는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부과 수련을 받고 한국 피부과 전문의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 후 2007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병원에서 미국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했다. 정교수는 보스톤 대학에서 펠로우십을 마친 후 교수로 남으면서 아시안스킨센터를 담당하게 됐다.

정교수는 “아시안의 피부는 아주 다루기 힘들다. 다른 인종에 비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피부이기 때문에 백인 환자만 전문으로 진료하던 피부과 전문의들은 한인 등 아시안들의 피부 치료를 익숙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정교수는 민감한 아시안 피부를 챙기는 데는 최적인 선택이다.

아시안스킨센터에서는 보톡스, 필러, 기미, 여드름 흉터, 노화 등 피부 미용은 물론 여드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주사 등 일반 피부질환도 모두 치료한다. 피부질환 치료, 특히 약을 처방하는 치료는 건강보험 커버가 가능하지만 피부 미용은 보험 커버가 안 된다. 보톡스, 필러, 레이저, 케미컬 필링은 대표적인 비보험 치료 항목이다.

피부 미용의 비용에 대한 질문에 정교수는 “보스톤 시내 피부 미용 비용의 평균 정도이나 피부전문 의사의 시술이 그만큼 합병증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첫번째 진료에서 비용과 치료 과정, 치료 후 주의사항 등을 말씀드리며 가격이 맞지 않거나 추후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만약 바로 치료를 원하시면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교수의 말이다.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피부과 전문의를 보기 위해서는 1차진료의(Primary Care Doctor)를 먼저 보고 추천서(Referral)를 받는 것이 좋다. 정교수는 “(피부질환인 경우) 1차 진료의를 통해 추천서를 받는 것이



보스톤메디컬센터(BMC) 산하 아시안스킨센터 피부과 전문의 정혜진교수

안전하다”고 권장했다.

보스톤메디컬센터는 다수의 보험을 받고 있으며, 보스톤메디컬센터(<https://www.bmc.org/visiting-us/insurance>)를 방문해 자신이 소유한 건강보험 플랜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정교수에 따르면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병원 피부과 대기시간이 길다. “미국은 의사 대비 환자수가 많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안스킨센터는 2-3주 안에 진료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정교수는 “예약없이 찾아도 피부과 전문의를 조금 기다렸다 당일 내에 볼 수 있는 한국의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안스킨센터를 찾을 때 피부미용 진료일 경우 617-414-2676로 전화

해야 하며, 피부질환 진료일 경우 617-638-7420로 전화해야 한다. 예약할 때 ‘아시안스킨센터’에서 진료를 원한다고 얘기해야 빠른 진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아시안스킨센터는 Shapiro Center(725 Albany St., Boston, MA)빌딩내 8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차는 건너편 주차장(710 Albany St., Boston, MA)에 하면 된다. editor@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요즘 같은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환절기
세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9월 스페셜 프로모션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30g 무료증정**



**천녹정 / 천녹돈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3+1  + 

**화예락본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글을 통해 치유를 얻은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싶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본지 칼럼니스트 신영작가가 산문집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를 출간했다. 4년만에 나온 산문집이지만 벌써 5번째 산문집이다.

제목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활동하는 삶의 모습을 고스란이 담은 책이다. 22일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을 찾아온 신영작가는 “보통 사람의 삶이 그렇듯 사람 관계와 관계 속에 쏠린 부분을 그대로 묵히지 않고 그때 그때 풀어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여행”이었다며 “여행하면서 길 위에서 느꼈던 것들을 주섬 주섬 담은 글”이라고 말했다.

신작가는 2011년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다. 남편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작한 산행이다. 산을 타면서 늘 기도하며 다녔고 지금도 산타기는 기도의 연장이다. 산행에서 그는 오감으로 자연을 만나고 산의 느낌을 간직해 와서 사람을 대했다. 남편의 몸도 점차 회복됐다.

산행을 통해 산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졌다. 여행도 산행의 연장 그 어딘가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때 여행이 주어지고 자유로움도 만끽한다.

신영 작가에게 글쓰기란 치유의 과정이다. 신 작가는 “글을 쓴다는 것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 맘에 응어리졌던 크고 작던 것을 풀어내는 치유의 작업”이다. 이 글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신 작가의 마음이다.

새벽에 잠을 깨서 커피 한잔과 함께 매일 글을 만난다. 신영작가가 14년째 매주 보스톤코리아에 ‘세상스케치’란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산문집이 5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왕성한 글쓰기 삶이 바탕이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시장작교실을 여는 것이다. 연세 드신 분들과 글쓰기를 해보고 싶단다. “보통 사람들의 꿈이 가득찬 가슴에 누군가 수도꼭지를 달아주면 활활 흐를텐데” 하는 마음 가짐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의 어머니들은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가셨다” 며 노인분들과 글쓰기를 통해 이를 풀어내고자 한다.

신작가는 “(내가) 글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를 얻은 것처럼 (글을 통해 치유를 얻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고 말한다.

신작가는 보스톤코리아, 뉴욕일보, 대구일보 등에 기고하고 있으며



본지 칼럼니스트 신영작가가 신간 산문집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를 들어 보이고 있다

보스톤라이프스토리 웹진에도 기고하고 있다. 3권의 시집과, 5권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현재 사진작가로도 맹활약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 그의 산문집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는 구글로 검색하거나 알라딘USA에서 구입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영사관, 총영사 재향군인회장 임명장 수여 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총영사관은 지난 8월 17일자 보스톤코리아 기사 「재향군인회 중앙회, 보스톤 이강원회장 재임명」 기사 내용중 일부 오류 정정을 요구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는 8월 8일 오전 총영사관을 방문한 이강원 재향군인회 보스톤연합회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라는 내용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총영사관은 “이강원 회장께서 신임 인사 차 저희 총영사관을 방문하셨고 저희 총영사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총영사가 이강원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는 않았다” 고 바로잡았다.

총영사관은 “총영사는 정부기관의 요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단체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전수)하지 않습니다.” 고 덧붙혔다.

이강원 회장은 이에 앞선 8월 9일 보스톤코리아에 카톡으로 보낸 서신에서 “보스톤 총영사관을 예방하여 김용현 총영사에게 신임 인사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고 밝혔었다.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편집장 겸 발행인은 “총영사관에 전수여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실수이므로 오류를 바로 잡는다” 고 말하고 “총영사관을 비롯 독자들에게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특집> 보스톤서 만난 탈북 대학생 인터뷰

보스톤서 만난 탈북 대학생 세 명과 3색 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는 새터민이라고 하지 만 여전히 탈북자가 쉽게 이해된다. 유사하게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란 말을 사용하지만 불법체류자란 단어를 미 언론은 선호한다. 미국 이민자들은 생김새가 다르니 바로 구분된다. 탈북 학생들은 생김새도 사용하는 언어도 같으니 그저 학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탈북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탈북'이란 두글자를 붙이는 순간부터 그들을 달리 본다는 뜻이다. 케임브리지 소재 EDR(교육격차개혁)에서 한달간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 대학생들을 만났다. 처음으로 만나는 북한출신의 학생들이 남한 대학생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 놀라고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에 허탈했다.

이민자나 다른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에게 선입견을 갖는 것은 비극이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보니 이들의 느낌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일까.

짧은 시간에 가진 인터뷰였기에 북한과 '탈북' 대학생들의 한 단면만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들을 이해하는 터 정도만 일구었다는 뜻이다.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탈북'이란 딱지였다. 특히 차별에 힘들어했다. 사춘기에 온 이들은 한국인들의 차별적인 시선에 민감했고, 비교적 성년이 되어 온 이는 비교적 이 같은 차별에 당당했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이들의 자존

감은 아주 높았다. 1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의 대화를 소개한다.



이승준 학생(30, 건축학 전공). (사진= 보스톤라이프스토리 제공)

나의 가치는 무궁무진- 이승준 학생(30, 건축학 전공)

▶4주동안 어떤 것을 주로 공부했나?

EDR에서 기업가 정신을 많이 공부했다. 미국역사 하버드 대학과 MIT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봤다. 건축이다 보니 마케팅, 기업가 정신을 몰랐었는데 기업가 정신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다양한 유명한 교수님들이 와서 기업가정신을 강의 해주셨다. 그 중 나의 가치에 관한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다. 내가 누군지,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본인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나는 다

른 사람 보다 북한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한국에서 12년을 살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공부했다고 볼 수 있다.

▶18살 때 탈북했는데 북한과 한국 각각의 좋은점, 나쁜점은?

북한의 나쁜 점은 굉장히 많다. 좋은 점은 친구들과 끈끈함, 명절 때 어르신 찾아뵙고 술한잔 드리고 인사드리는 것. 한국도 80년대는 그랬다고 들었다.

한국의 좋은 점은 많다. 항상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다. 모든 게 선물 같다. 안 좋은 점은 북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다. 이겨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많다. 또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북한 사람 5명 중 1명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데...?

북한도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알고 있다. (중국)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전화를 자주 하기도 한다.

▶꿈이 무엇인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적응을 많이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살아보니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다. 내가 받았던 감사 그런 것을 되돌려 준다는 심정으로 살고 싶다. 사회적인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기회가 많은 한국 전문인이 되겠다



김아도라(가명 24, 국제 무역학과). (사진= 보스톤라이프스토리 제공)

- 김아도라(가명 24, 국제 무역학과)

▶영어를 잘 하던데 어떻게 공부했나?

영국문화원 학원에 5개월 영국에 6개월 다녀왔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하버드 대학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하버드가 넘버 1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이 이번이 처음이라 공부를 해서 왔는데 주로 공부했던 것이 하버드의 역사였다. 그리고 나머지 보스톤에 대해서는 좀지루하다. 배울 게 많은데 너무 놀게 없다. 쇼핑도 별로 할 게 없다. 프루덴셜도 가봤는데 한국만은 못하다.

▶한국의 여성보다 더 한국적인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탈북은 언제 했나?

2009년 9월 15일에 집에서 나왔고 11월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생활이 8년

이 넘었다. 15살부터 한국에 살았다. 그때는 암흑의 시기였다.

▶청소년기였는데 왜 암흑의 시기였는가?

청소년기가 아닌 사춘기였다. 오기 전날까지 학교 다니다 잘 살다 오니까 여기 적응하기 힘들었다.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북한은 전체주의여서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힘들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누구이고 내 성격, 내 꿈 등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솔직하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었나?

사람들의 편견이 힘들었다. 어렸을 때 (북한)사투리를 쓸까봐 입을 안 열었다. 사투리를 쓰면 수근거리거나 심지어 비웃었다. 내가 잘못하면 북한에서 와서 이렇구나 하는 지적도 싫었다.

▶북한과 한국의 각각 좋은점과 나쁜점은?

북한에서는 꿈을 꾸지 않았다. 공부를 잘 했지만 대학에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기회가 너무 많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를 수 있다. 기회가 많은 게 가장 좋았다.

▶북한에서는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토대(출신)가 안 좋았다. 재일교포였다.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다. 노동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간부도 될 수 없었다. 밑수로 돈은 많았지만 권력은 없었다. 간부들이 돈을 언제든 지 뺏아가곤 했다.

▶꿈은 무엇인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특집〉 보스톤서 만난 탈북 대학생 인터뷰

▶▶6면에 이어서

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돕는다.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내가 성향적으로 혼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만의 통, 번역 쪽을 생각하고 있다.

▶통일인가 경제 공동체인가

통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멀다고 생각한다. 그전에 남북경협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향에)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김연진(23 교대 2년생). (사진= 보스톤라이프스튜디오 제공)

아직은 북한살이 한국보다 행복했다- 김연진(23 교대 2년생)

▶많은 사연이 있다고 들었다.

세살때 어머니가 탈북하셔서 할머니, 아빠가 키워 주셨다. 아빠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15살 때 돌아가셨다. 그 때부터 한국에 오기 전인 2015년 까지 혼자 살았다. 한국에 온지는 2년 됐다.

▶어머니는 만나셨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도 먹었지만 당연히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더 맛있었다. 3살 때 헤어져서 엄마 얼굴도 몰랐고 정도 없었다. 20

살 때 엄마 얼굴을 처음 봤다. 엄마는 나를 안고 울고불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없이 살다보니 힘들 때가 많았고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았다. 그래서 엄마에 고까운 감정이 많았다. 처음에는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20년 만에 만났는데 '혼자 안고 가자' 는 마음에 싫은 소리를 안했다. 2년 되어서 정이 붙었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허물없이 엄마 이랬어 저랬어 아직 못한다.

▶언제쯤 털어 놓을 것인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사실을 털어놓으면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신장이 안좋으셔서 수술도 많이 받으셨다.

▶2년 밖에 안됐으니 북한과 한국을 가장 근접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좋다고 못느낀다. 경제는 북한보다 좋고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장사를 해서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잘 살았다. 한국에 오니 빈손에서 시작해야 하니까 막혔다. 학교도 못다니 공부도 못했는데 대학은 가야해서 북한에서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 현재 교대 2학년에 재학중이다. 교대가 경쟁률이 세다. 나름 내 삶에 만족을 하지만 북한의 삶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그 북한의 장마당에서 말인가?

장마당을 점령할 정도로 장사를 잘했다. 회령 시장에서 종이부터, 학용품도매를 했고 남자 양복을 미싱으로 만들어서 팔았다. 음식장사도 해봤다. 딸 같은 애가 장사를 하니 와서 사주고 했는데 가격도 다른 집보다 싸게 팔고 하니 장사의 터전이 잡혀서 잘하



비영리단체 EDR (Educational Divide Reform; 교육격차개혁연구소)이 한국정부관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을 통해 선발한 탈북학생들이 보스톤에서 한달간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았다

고 살았다. 오기 전 해에는 집도 사고 전화도 넣고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와야 했다.

▶한국에서 교대를 다니면 교사를 할 것인가?

어릴 때 꿈이 교사였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 주위에서도 교사가 맞다고 하는데 석사는 다른 쪽으로 해보고 싶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교사로 살기에는 내 삶이 아깝다.

▶본인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이 나의 바탕이 된다. 어릴 때 원망을 많이 해서 거친 성격인데 지금은 감사하다. 같은 나이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 부모한테 의지. 나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기 와서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는가?

아니 전혀 없다.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은 북한사람인 것을 숨기려 한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죄도 아니다. 차별하는 사람 자체가 수준이 안된다. 학교에서 우리 과에선 북한 사람 나 1명인데 학기째 과대(표)를 하고 있다. 나름 잘 살고 있다. 대학교 들어가 북한에서 왔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 한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나에겐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모든 게 인상에 남았다. 이번에 느끼는 게 많았는데 세상은 너무 넓고 나의 존재는 너무 작다. 하버드는 북한에서도 유명하다. 그런데 하버드대를 직접 가

보고 하버드 생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할까 생각해 왔다. 미국은 '미제 승냥이, 나쁜놈' 이란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인들과 거리감을 두었다. 세뇌가 돼서 너무 무서웠다. 미국에서 직접 문화를 보고 체험하니 진짜 북한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 미국 사람들은 머리에 빨나고 승냥이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

▶통일과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도 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고향에도 가고 싶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통일이 되도 솔직히 고향에 갈 확률이 낮다. 경제공동체는 고향에 갈 확률이 없다. 북한에서 우리는 반역자다. 마음을 열어서 경제라도 소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장진섭 비영리단체 EDR(Education Divide Reform, 케임브리지 소재) 대표

“탈북학생들의 성공이 곧 국가 안보”

장대표 “교육장벽을 해소하면 안전해진다”
비영리단체 EDR 통해 인간중심국가안보 실천
탈북자 경영인 교육도 인간개발로 안보 확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탈북자들의 성공은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소재 비영리단체 EDR(Education Divide Reform)의 장진섭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은 장차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을 남한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한 시급성이 된다” 는 것이다. 현재 유매스(U-Mass)보스톤에서 ‘휴먼중심 국가안보(Human Centric National Security)’ 연구하고 있는 장대표는 “교육장벽이 사회적으로는 통합의 걸림돌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안보에 영향을 준다” 고 여긴다.

교육장벽을 해소하는 교육으로 사회 및 국가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것은 ‘휴먼중심 국가안보’ 의 핵심 개념이다. 이 연구는 이민 2세 문제에 주목하면서 시작됐다. 이민자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경제적 장벽과 어울리면서 2세들은 시작점 자체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

애국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극우 내셔널리즘이 서로와 서로를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장벽이라고 본다. 장대표는 이 같은 장벽 해소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주위 교수들과 함께 비영리단체 EDR을 만들었다.

미국 국내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면서 교육기회가 적은 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를 늘려 국가, 나가서는 국제적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다. 장대표가 3년여 전부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이유다.

“목숨 걸고 왔는데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하겠느냐. 그들이 잘되는 것이 북한 통일과 민주화의 시험대” 라는게 장대표의 말이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3번째 탈북학생들을 보스톤으로 초청해 한달간 기업을 교육 시키고 있다.

그들에게 경제와 경영 그리고 기업

가 마음자세를 교육시켜 자유시장 경제에 생존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를 확보하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면 인간개발에 의한 안보라는 연구를 증명하는 셈이다.

장대표는 “단순히 창업만 아니라 기업을 마인드를 가져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취업을 해도 월급만 받고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는 한가지 정신은 주인정신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한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오는 탈북학생들도 쉽게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한국청년기업가 재단을 파트너로 지정해서 국내 교육과 선발을 맡는다. 15명 정도 서류를 주려서 불러들이고 3일 국내 교육 후에 3일째 되는 날 면접을 한다. 최종 6명을 선발해 보스톤에 오는 자격을 부여한다.

첫번째는 장대표의 개인 교육사업체인 타스(Tahs)에서 90%의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점차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항공기 비용을 지원해 2기는 좀 더 안착이 됐다. “전문가들은 물론 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서 교육받은 탈북 학생들 “내 가치는 무한대”

▶▶1면에 이어서

탈북’ 이란 두글자가 자신들의 삶에 붙는 게 그리 반갑지는 않아 했다.

이 학생들은 보스톤 소재 비영리단체 EDR (Educational Divide Reform; 교육격차개혁연구소)이 한국정부관련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을 통해 선발한 탈북학생들이다. 한국내에서 일정정도 교육을 거쳐 보스톤에서 한달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번이 벌써 제 3기째다. 지난 2016년 여름부터 시작해 올해 1-2월 그리고 7-8월에 두 번을 진행했다.

EDR의 장진섭 대표는 “탈북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자칫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한국 정부와 한국내 단체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 탈북학생들의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장대표는 “장차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을 남한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급성이 되므로,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 라고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EDR과 장대표의 신념을 현실화하는 현장인 것이다.

탈북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용기와 능력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실제 창업을 통해 성공한 기업가들을 만나 그들의 경



18일 EDR에서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험담을 직접적으로 듣고 8월 23일 보스톤을 떠난다.

EDR 장진섭 회장은 “이를 통해 탈북민 사회에서 많은 성공 케이스가 만들어 짐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수함을 실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1회에 그치지 않고, 보완점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탈북학생 이승준씨(30)는 미국에서의 교육과정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한 질문에 “나의 가치를 책정해 본 수업” 이라고 답했다. 김아도라씨(24)는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 라고 밝혔다. 김연영씨(23)는 미국을 직접 보게 된 것으로 미국 사람들이 승냥이가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세상이 정말 넓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초보를 위한 관광 가이드>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꼭 방문해야 할 보스톤의 대표 관광지 10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수많은 보스톤의 명소 중 어디서 무엇을 해야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보스톤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멀리서 온 손님이 짧은 시간 내에 보스톤의 역사와 문화, 레저와 쇼핑을 두루 맛볼 수 있는 대표 관광지 10곳을 추려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온라인 관광 가이드 타임아웃(timeout.com)에서 선정한 보스톤의 관광지를 바탕으로 편집한 것이다.

1. 보스톤 커먼과 퍼블릭 가든 산책하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보스톤 커먼은 1634년에 설립된 미국내 가장 오래된 공립 공원이다. 50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에는 개구리 연못이 있어 여름에는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며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 건너편에 있는 보스톤 퍼블릭 가든은 미국 최초의 식물원으로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석호와 화단으로 꾸며져 있다. 1877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백조보트는 여전히 인기만점이다.

2. 펜웨이 파크에서 홈팀 응원하기

1912년에 개장한 펜웨이 파크는 메이저 리그 홈구장 중 가장 오래된 구장이다. 추운 날씨에도 항상 매진이므로 표를 미리 예매해두는 것이 좋다. 경기를 관람한 후 보스톤 레드 삭스의 로고가 찍힌 야구모자나 티셔츠를 선물한다면 좋은 여행 기념품이 될 것이다. 인근의 펴에 들러 지역 주민에게 2004년 월드 시리즈 우승에 대해 묻는다면 진정한 홈팬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박물관 둘러보기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여 상속받은 전재산을 예술을 위

해 사용한 이사벨라의 저택은 그의 죽음 이후 박물관이 되었다. 베네치아 궁전을 모델로한 박물관은 여타 박물관과 분위기가 다르다. 기존의 전시방식과 다르게 꾸며진 방들은 예술 수집가 이사벨라가 직접 꾸민 것으로 독특한 미적 감각을 뽐낸다. 일년 내내 꽃이 가득한 안뜰 또한 매력적이다. 이름이 이사벨라인 사람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4. 뉴잉글랜드 수족관에서 펭귄 만나기
상어와 바다거북이를 비롯한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거대한 해양 탱크가 있는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는 펭귄이다. 아쿠아리움 입구에 들어서면 80여 마리의 작은 펭귄들이 맞이한다. 건물은 펭귄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양한 이벤트가 매일 진행되므로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5. 보스톤 공립 도서관 방문하기

1895년 설립된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거의 백만평방피트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공연과 투어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최근 이루어진 개조를 통해 쌍방향 정보검색 설비가 추가되었다. 건물의 중심에 있는 안뜰은 분주한 도심 내 가장 조용한 장소일 것이다. 이곳에서 잠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더할나위 없는 휴식이 될 것이다.

6. 보스톤 미술관에서 예술작품 감상하기

1870년에 설립된 보스톤 미술관에는 50만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수요일 오후 4시 이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 영화상영, 실물 모델 드로잉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미국의 독



보스톤 퍼블릭 가든

립 역사를 예술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관이 보스톤 미술관의 하이라이트다. 프랑스 파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모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 방문하게 되면 잊지 말고 유려한 안뜰도 방문해보자.

7. SoWa에서 쇼핑하기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운영되는 오픈 마켓이다. 약 200개의 제조사와 판매업자의 가판대 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파머스마켓, 맥주 헛간 등이 운영된다.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게임과 라이브 음악은 거리의 축제를 방불케 한다. 마켓의 건물 내부에서는 빈티지 의류와 가정용품이 판매한다. 인근의 거리에는 현대 미술 갤러리가 즐비하다.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보스톤

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지역이다.

8. 뉴버리 스트리트에서 돈쓰기

보스톤 최고의 쇼핑 거리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아기자기한 벽돌건물에 자리잡은 다양한 부티크와 카페, 레스토랑, 미용실과 갤러리가 알링턴 스트리트에서 매사추세츠 애비뉴까지 이어진다. 샤넬과 버버리같은 명품가게부터 인터믹스와 랙앤본과 같은 세련된 부티크 등 다양한 국제적인 브랜드 매장을 찾아볼 수 있다.

9. 고래 구경하기

지구상 가장 큰 포유류를 보기 위해 보스톤 하버에서 매일 운항되는 보트 한 대에 몸을 실어보자. 차가운 바닷바람을 피하기 위한 두툼한 옷과 따뜻한 햇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선블

록을 꼭 챙겨야 한다.

10. 그린웨이 산책하기

약 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엄청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빅디는 진행과정 중 보스톤 시민에게 많은 고충을 주었지만 그 결과물 중 하나인 그린웨이는 도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다. 15 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은 자킵 다리와 차이나티운을 연결한다. 산책로를 따라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잔디밭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로 공원은 항상 생기가 넘친다. 푸드 트럭과 비어가든에서 여유있는 한끼 또한 해결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NYU 의대,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현재 재학생, 미래 입학생 모두 등록금 면제 연간 5만 달러 이상 학비 학교가 모두 부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막대한 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의대 진학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NYU(New York University) 의대를 목표로 하면 된다. NYU 의대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앞으로 입학 허가를 받을 학생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최상위권 의대 중에서 이런 과격적인 제안을 하는 곳은 NYU가 유일하다. NYU 이사회의 케네스 랭곤 의장은 “지금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자랑스럽다. NYU 의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학비가 무료다”라며 “여기서, 지금 당장 적용된다. 더 이상 의대 등록금은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NYU 의대의 1년 등록금은 55,018달러이며, 이 비용을 학교에서 모두 충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NYU 의대에서 공부하는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NYU 의대생들은 숙식을 위한 생활비로 1년에 평균 29,000

달러를 쓰고 있다.

미국 의대 연합에 따르면 2017년에 의대를 졸업한 사람 4명 중 3명이 부채를 안고 있다. 빚을 가지고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192,000달러이다.

NYU는 모든 의대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의학계의 편향된 모습을 꼽았다. 의

대를 졸업한 예비 의사들이 큰 빚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하거나 원하는 분야가 아닌, 수익성이 좋은 의료 분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NYU는 의대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의 인종 다양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18학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9만명의 학생들이 의대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2%가 백인이다. 아시아인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8%가 다인종, 흑인은 7%, 히스패닉은 6%에 불과하다. jsi@bostonkorea.com



NYU 의대는 입학 허가를 받은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MA주 안전벨트 착용 비율 낮은 수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만,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미국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시행한 안전 운전 리서치 프로그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약 82%의 운전자와 앞 좌석의 승객이 주행 중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작년 조사 결과가 약 74%인 것과 비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비율은 이미 90%에 도달했다.

매사추세츠는 주법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남성 운전자는 78%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고, 여성 운전자는 조금 더 높은 87%가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보스톤,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 비용 가장 높아

미국 평균은 \$20,118, 보스톤 평균은 \$27,545
라이드 셰어링 비용, 자동차 소유할 때보다 2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리플 에이(AAA)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에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플 에이는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사했는데, 보스톤에서의 라이드 셰어링 비용이 가장 비쌌다. 라이드 셰어링을 가장 주된 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보스톤에서는 1년에 평균 27,545달러

가 든다는 것이다. 미국 전체 평균은 20,118달러다.

트리플 에이에 따르면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1년에 10,841마일을 운전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차 비용을 제외한 자동차 유지 비용은 1년에 7,321달러에서 10,841달러 사이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총 비용은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훨씬 높다.

다만 보스톤 지역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비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트리플 에이에 따르면 보스톤인들은 1년에 평균 5,298달러를 주차를 하는데 지불하고 있다.

트리플 에이의 보고서는 “라이드 셰어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할 때 13.15달러를 지불하고, 이용 시간은 15.11분이며, 6.66마일을 이동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트리플 에이는 자동차 유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시했다.

- 아주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를 산다 /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휘발유를 주유한다 / 자동차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휘발유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지역에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싸다



CDC/James Gathany

주보건부가 매사추세츠 전역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위험 수위를 높였다. 질병통제센터 웨스트나일 모기 자료사진

매사추세츠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위험수위 격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한인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보건부가 주 내 전 타운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위험수위를 낮음에서 보통으로 21일 한 단계 높였다.

주정부가 매사추세츠 전역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위험수준을 격상시킨 것은 사상 두번째다. 주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매사추세츠 351개 타운중 162개 타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위험 수준이 보통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람감염 사례는 없었으나 전역에 위험수준을 격상시킨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다.

모니카 바렐 주 보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덥고 습기가 높은 날씨가 높은 강수량과 맞물려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보균 모

기들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고 말하고 “계속해서 모기 퇴치제를 뿌려야 하며 모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새벽 및 석양 무렵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전 연령층을 감염시킬 수 있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성인층에 가장 심각한 질환을 발생시킨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리면 균이 인간에게 전이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열과 유사 플루 증상이 나타나며 아주 드물게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 보건부는 “8월과 9월에 가장 많은 사람 감염사례가 발생한다” 며 “주 전역에 위험수위를 높인 이유가 바로 이것” 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유죄, 자백, 유죄...트럼프 목 조이는 러시아 스캔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둘러싸고 이날 두개의 거대한 먹구름이 한꺼번에 졌다"

21일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하게 된 상황,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유착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이 목을 조여오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선거캠프 핵심 인사가 세금사기 등 10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플리바기닝'을 선택하면서다.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팀의 1년 넘는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헌신했던 폴 매너포트(69)와 마이클 코헨(52)은 이날 각각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매너포트는 세금사기·은행사기·국외 계좌 미신고 등 주로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와 검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더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코헨은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46~63개월형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코헨은 특히 스톰피 대니얼스와 케런 맥두걸 등 트럼프와 성추문에

휩싸인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한 만큼 향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도덕적·정치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FP통신은 2명의 최측근이 잇달아 무너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추진 중인 무러 특별검사팀 수사가 탄력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스캔들의 의혹을 수사해 온 무러 특검은 현재까지 100명 이상을 조사하고, 러시아 측 인사를 포함해 30여명을 기소했다.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매너포트는 트럼프 캠프 인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무러 특검의 칼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전망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논란뿐 아니라, 당선 이후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는 등 사법방해를 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코헨이 자백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등진 인사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제 무러 특검의 사법처리 대상인물은 지난 2016년 '트럼프

타워 회동' 때 러시아 인사와 접촉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심복 매너포트의 유죄 소식에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폴 매너포트에 대해 매우 속상하다"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 밝혔다. 측근의 범죄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한 셈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선 "내가 진실을 말한 다 해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특검 대면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무러 특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강 대 강' 대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onjun44@news1.kr



왼쪽부터 폴 매너포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클 코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 9월 당시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과 자신의 성추문 관련 대응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CNN 방송이 입수해 공개했다. (CNN 캡처)

트럼프 전 변호사 코헨 사실상 유죄인정, '플리바기닝' 선택

46~63개월 형 받기로 검찰과 합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21일 기소 위기에 처하자 선거자금법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플리바기닝'(유죄인정 조건 감형)을 선택했다. 사실상 유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코헨은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금융사기, 탈세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46~63개월 형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재판을 맡은 윌리엄 H. 폴리 판사는 코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정했다.

특히 이날 코헨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추문에 휩싸인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배우 스톰피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플레이보이' 모델인 케런 맥두걸의 입을 막기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이 논의하는 녹음 테이프도 공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뉴욕 택시사업을 할 당시 약 2천만 달러(약 223억5000만원)의 부당 대출을 받는 등의 개인비리까지 드러나 코너에 몰리자 코헨이 플리바기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코헨의 자백은 매번 하던 거짓말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델러스 연은 총재, 향후 금리 3~4회 인상 예상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를 나타내고 인플레이션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연준은 향후 최소 9~12개월 동안 점진적 금리 인상 계획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21일 말했다.

한편 에세이를 통해 그는 단기 금리가 "중립적인" 수준에 다다를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향후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확장시키지도 수축시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뜻한다.

카플란 총재는 금리의 중립적인 수준이 2.5~2.75%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델러스 연은이 발간한 에세이에

서 그는 "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범위에 진입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대략 3~4번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플란 총재는 "(금리가 중립적인 수준까지 오르는) 시기가 올 경우, 나라면 한발짝 물러서서 경제 전망을 평가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 수익률과 수익률곡선 등의 요인을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두고 "신나지 않는다"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며 "나는 연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플란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

으나, "(금리 인상은) 미국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상을 보는 연준의 시각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감세안의 효과가 줄어 성장세가 둔화하리라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 수익률곡선 평탄화를 두고도 카플란 총재는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세 둔화를 예견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확장세가 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경제 확장세는 역사상 최장 기록을 앞두고 있다.

francis@news1.kr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석탄 화력발전소

트럼프 행정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

오바마 정부 친환경 정책 뒤집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뒤집고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CNN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 앤드루 힐러 청장 권한대행은 성명을 내어 "청정에너지법(ACE)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미국인에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가 밝힌 이번 조치를 통해 주정부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은 바라봤다.

또한 청정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정에너지법은 오바마 전임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뒤

집는 차원에서 나왔다. EPA는 이날 성명에서 CPP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의 CPP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또 각주에 감축 목표를 설정해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압박했다.

EPA는 새로운 청정에너지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4%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4억달러에 달하는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화력발전소 정책을 대체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2배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un44@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김동연, 경제 내 책임...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질 것

소득주도 소모적 논쟁 많아...재정·복지확대는 투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고용침체 등 경제문제와 관련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이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의미하는 '물러나라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지금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보면 책임지는 게 도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 기재위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

을 '스텝'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고, 책임 지는 과정에서 조금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가 지난 6일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으로부터 '가지말라' 또는 '구걸하지 말라'는 사인을 받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장 실장이 좋은 생각이라고는 했는데, 정부가 (투자자금 등을) 증용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나하는 의사는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장 실장도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삼성 방문이 투자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의 방문 이후 삼성전자가 180조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원래 주기적으로 하던 발표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 등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 진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큰 방향과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정책 수단이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100% 똑같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게 훨씬 생산적, 건설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외람된 말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많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고, (효과를 볼 때까지) 시장의 수용성이나 호흡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주도뿐 아니라 혁신성장도 병행하고 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복지정책 확대 방침을 둘러싼 야권 의원들의 '밀빠진 독에 물붓기' '현금살포' 공세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구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단순히 시혜차원이 아니라 투자적인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 특활비 관련, 일부 부처는 특활비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관련 부처 및 기관은 구조 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며, 집행에서도 투명성·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sgkk@news1.kr

장하성, 경제파탄 정당한 평가야...중산층 어려움에는 동의

(서울=뉴스1) 양새롬, 정상훈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현재 상황을 '경제파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지만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장 실장은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있을 것"이라면

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부분은 고용원 없는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현 경제상황)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구조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데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또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올해 연말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근거로 "전체 고용을 취업자 수에 증감으로 따지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많지 않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총 몇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고용률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정책수단이 동원되면 10만~15만명 수준은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롤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UG. 24 - AUG. 30,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VERMICELLI SALAD WITH PORK (BUN CHA SALAD)

LOOKING FOR HEALTHY BALANCE BUT CRAVING TASTE?
THIS VIETNAM STYLE NOODLE SALAD MAKES YOU FORGET IT'S SALAD.

H마트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식사! 쌀국수가 들어있어 든든한 한끼로도 손색없는 상큼한 분짜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p>	<p>Packed Garlic 팩마늘 5oz/pkg 2\$3 pkg./for</p>	<p>White Peach 백도 \$1.99 lb.</p>	<p>Lotus Root 연근 \$1.88 lb.</p>	<p>White Nectarine 화이트 네펠린 \$1.99 lb.</p>
<p>JINGA Tofu 친가네 두부 Firm/Soft - 16oz./pkg. \$0.99</p>	<p>FRID/SAT/SUN ONLY 24/25/26 ONLY Red Plum 빨간 자두 \$1.49 lb.</p>	<p>Gobo 우엉 \$1.99 lb.</p>	<p>FRID/SAT/SUN ONLY 24/25/26 ONLY Pluot Plum 플루엇 자두 \$1.49 lb.</p>	<p>FRID/SAT/SUN ONLY 24/25/26 ONLY Seedless Red Grape 씨없는 적포도 \$1.79 l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Sliced Beef Chuck Flap Tail 삼치살 구이 \$14.99 lb.</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p>
<p>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 lb.</p>	<p>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99 lb.</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얇은 쇠살박이 \$8.99 lb.</p>	<p>Sweet Sauce Marinated Pork CT/Butt 간장양념 돼지고기 \$4.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Norwegian Salted Mackerel 노르웨이자반고등어 \$3.99 lb.</p>	<p>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홍합배 절단 꽃게 \$7.99 lb.</p>
<p>TONGTONGBAY Cooked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바지락살 \$6.99 pkg./for</p>	<p>TONGTONGBAY Dried Jiji Anchovy 통통배 어간이용 지리멸치 \$9.99 pkg./for</p>
<p>Golden Pompano 금방어 \$2.99 lb.</p>	<p>Bronzini 브론지니 \$5.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 \$9.99</p>	<p>ALMOND Dan 아몬드 당면 All Natural 8.1-12oz. \$2.99</p>
<p>HAEDUNMARA Cold Noodles 해동나라 평양냉면/해동평양면/평양비빔면 15 pack \$3.99</p>	<p>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해림 인스턴삼계탕 \$8.99</p>

BACK TO SCHOOL BIG SAVING SALE

AUG. 24 - SEP. 3, 2018 AT ALL HMART MA STORES

COMING SOON

HMART'S SMART APP IS HERE!
스마트한 쇼핑을 도와줄 마트 스마트 앱

HMART'S SMART APP! HURRY!

<p>TAMAGO Golds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타마고 골드 쌀 15 lbs. \$23.99</p>	<p>PALDO Bibim Men 말도 비빔면 4 pack 1.5oz x 4pk \$3.99</p>	<p>CHUNGJONGNE Sunchang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원장 6.17 lbs. \$7.99</p>	<p>GU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6.5 lbs. \$3.99</p>	<p>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비빔면 1.5 lbs. 2\$5</p>
<p>HAEDUNM Canned Bai Top Shell 해동면 냉동 바지락 14.1oz. \$4.99</p>	<p>SSB Golden Curry SSB 골든 카레 All Varieties 8.5oz. \$2.99</p>	<p>ALMOND Gyoza Dumplings 아몬드모도 고자만두 2.2oz x 1.5oz lbs. \$5.99</p>	<p>CJ BIRD'S BRANDS Creamy Chicken Breast CJ 비둘기순살 크리스피 치킨 \$6.99 lb.</p>	<p>BINGGRAE Melona 빙그레 멜로나 All Varieties 2.11oz. x 8oz. pkg. \$3.99</p>
<p>HATAI Midongsen Peanuts Crunch Snack 하태 맛동산 11.4oz. \$2.99</p>	<p>DRAG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6.5oz. 2\$5 lb.</p>	<p>HELLD Potted Open Tumbler Mug 헬로 다스텔 오픈형 텀블러 머그 Blue/White/Green/Purple - 6.6oz. \$6.99</p>	<p>ARMAND Eco Spa Shower Filter 아르마도 에코스파 샤워필터 Blue/White/Lavender/Orange/Yellow \$9.99</p>	<p>HICOL Cool Toshi 히콜 콜로시 White/Blue \$2.4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 in thi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단, 현금결제 불가)
H-MART BURLINGTON STORE: 3-04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020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정보도 빼돌린 양승태 대법원

헌재 파견 부장판사→이규진→임종헌 전달 의심
세평·평의 정보도 보고...최종윗선 양승태 여부 주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탄핵심판 진행상황과 관련한 논의 등이 담긴 내부자료를 빼돌리는 등 정보원처럼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돼 근무하던 최모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논의 사항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서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인사평판 등 내부정보도 확보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의 USB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해 검찰은 이날 최모 전 부장판사의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삭제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삭제 지시를 내린 시기는 2017년 2월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심의관이 문건 유출 등을 우려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로부터 유출한 정보가 이 전 상임위원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유무도 추후 규명 대상으로 지적된다.

또한 문모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열람등사를 거부했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과 최 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자료, 최 판사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압수

색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 범의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nonki@news1.kr

탄핵심판 문건 유출 현직 부장판사 헌재 이메일 압수수색

(서울=뉴스1) 나연준, 서미선, 이지희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상황 관련 논의 및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22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8기)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최 부장판사는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빼냈는지' '평의 내용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표정으로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최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논의 사항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인사평판 등 내부정보도 확보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대법원에 유출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정보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

원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여부도 추후 규명 대상으로 지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과,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부장판사의 헌재 파견 근무 시절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yjra@news1.kr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직접 만든 육수가 일품인 냉면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NEW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NEW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NEW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NEW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Price Reduce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Price Reduced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들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Price Reduced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Price Reduced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Single Family
110 Hudson Road, Stow, MA
Asking price: \$675,000
Listing Agent: Kevin Curry
Phone: 978.852.2969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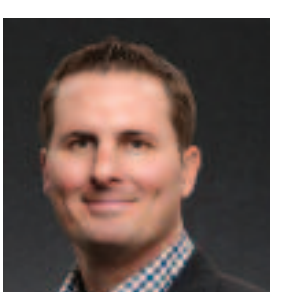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Rental
424 Washington Street - Unit 1
Gloucester, MA
Asking price: \$2,450/mo
Listing Agent: Bill Busiek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다섯 가지 유형의 부모들

교육 상담과 진학 지도 전문가로 지내오신 동안 필자는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상담해 보았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명문대학에 합격할 정도의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고매한 인격을 지닌 아이로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과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이들의 역할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교육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가치를 주입하려고 한다. 4살짜리 아이의 부모님과 심지어 2살짜리 아기의 아버지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준비하면 나중에 자기 아이들이 하버드에 들어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지만 여하튼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들 역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일찍이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한국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유형”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필자가 가장 흔히 만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유형의 부모님들이다.

“전문가 자처형” 부모: 필자에게 상담을 하러 왔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대학입학제도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정보나 지식은 대부분 그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소문이나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모은 것들이기 때문에 낱고 부정확하거나 틀린 것들이

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교회, 또는 작년에 아들이 스탠포드에 입학한 옆집 아줌마, 혹은 몇 년 전에 자식을 하버드에 보낸 부모들로부터 얻어 들은 정보들이다. 정보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이렇게 한국 부모들이 과편적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대학 입학사정관이었던 필자로서는 매우 안타가웠다. 그래서 대학 진학에 관한 보다 올바른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려 드려서 한인 동포들이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다.

“억지충항 강요형” 부모: 이런 부모들은 필자가 자신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아들이 제2의 이작 펄만(Itzhak Perlman)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런 아들이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그런데 필자가 그 아들을 만나 보면 볼수록 확실한 것은 그는 바이올린을 정말로 싫어하고, 또한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그가 바이올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 아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연극이다. 학교 연극 선생님은 그가 정말로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칭찬이 대단하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바이올린을 더 연습하기 위해 연극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성화가 대단하다.

“대학 강요형” 부모: 많은 고등학교 상담교사들은 이런 유형의 부모들을 필자에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한다: “딸인 제니퍼보다 엄마인 미세스 김이 하버드 가길 더 원해요.” 시카고, 마이애미, 달라스, 베데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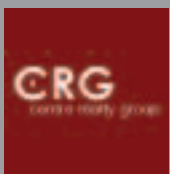
풀러턴, 시애틀, 포트리 등 하버드와 MIT를 대표하여 전국을 방문하면서 필자가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한국 부모를 지적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필자는 또한 교사나 상담교사 추천서에서도 똑 같은 이야기를 많이 발견하였다. 아이들은 부모의 뜻대로 이룬 꿈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개성과 분명한 삶의 목적에 따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명문대학이 바라는 학생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숙하면서도 독립적인 사람이다.

“수치 맹종형” 부모: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에 관한 수치라면 모든 것을 외운다 (GPA, SAT 점수, IQ, Stanford 9's, AP 성적 등). 그러나 공립인 주립대학(UCLA, 버클리,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 등)의 입학제도와 이 보다는 훨씬 복잡한 사립대학 입학제도의 근본적 차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숫자로 비교가 가능한 성적과 등수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작년 수석 졸업생은 예년에 불합격한 반면에 8등을 한 학생이 합격하였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헬리콥터형” 부모: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 주변을 끊임없이 “선회” 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감시한다. 아이를 보호하고, 그들 대신에 결정도 해주며,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을 자신들의 아이들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넘어져 혹시 무릎이라도 긁히지 않도록, 또는 최악의 경우 아이가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서 불굴의 의지가 어떤 뜻인지를 깨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따라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늘 아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비록 부모님들은 좋은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자녀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를 혼자 직면하여 해결하거나, 실패를 극복하고,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글 첫머리에서 필자는 똑똑하고 (smart), 매력이 넘치며 (interesting), 고매한 (noble) 인격을 지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세가지 형용사를 선택하여 사용한 이유가 있다. 하버드와 MIT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면서 필자는 수백 장의 한국 학생들 지원서를 검토하였었는데, 그 결과 한국인 부모들은 첫 번째 성격인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는데는 성공한 듯하다. 수 많은 개인 교습과 학원들의 도움으로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매력있고 고매한 인격의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한국 부모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명문대학을 지원하는 “똑똑한” 아시아 학생들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은 “매력이 넘치고” “고매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딱히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과외수업을 통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특성들이며, 한국 부모들도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학생이자 인간을 키우는데 미숙하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턴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잘 하겠습니다!

Jay Lee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금주의 LISTINGS



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

ASKING \$1,490,000



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

ASKING \$1,250,000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

ASKING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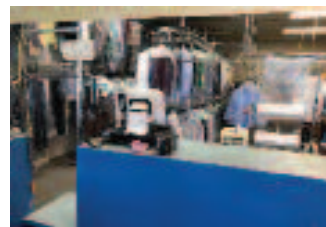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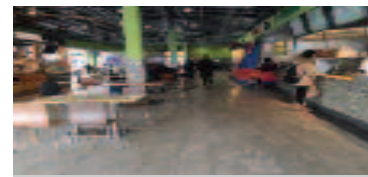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

ASKING \$168,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베이커	617-345-7958
보스톤경찰국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회선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연합회	781-424-5269
F자민정재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침례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1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978-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3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9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17-7374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미음식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순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 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Premier Realty Group	617-642-3156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중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이브로덴탈그룹	617-57

햄버거엔 햄이 없다

햄버거에는 햄이 들어있을까? 햄버거에는 햄이 아니라 소고기 패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치즈를 더한 것이 치즈버거이고,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은 것이 치킨버거이다. 한국에는 라이스버거, 김치버거, 새우버거가 있고 미국에는 turkey burger, bison burger, veggie burger도 있다. 그러니까, 아하, 햄과 버거로 이루어진 빵에서 햄 대신에 넣는 것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영어사용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햄버거는 [햄 + 버거]가 아니라 [햄버그 + 어] 라는 구조를 가진다. Hamburger는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라는 지명의 형용사형이다. 독일어에서는 지명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er이다. 냉전시절이던 1963년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해서 한 유명한 말 "Ich bin ein Berliner(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에 나오는 Berliner가 바로 '베를린의'란 형용사이면서 '베를린 사람'이란 명사이다. 그러니까 Hamburger는 '함부르크의'라는 형용사이자 '함부르크 사람'이라는 명사이다.

영어에서도 약간 다르긴 하지

만 -ar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al이지만 단어 끝에 /l/이 들어있으면 -al이 -ar로 바뀐다. 형용사 어미 -al이 붙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act ~ actual, center ~ central, classic ~ classical, culture ~ cultural, digit ~ digital, emotion ~ emotional, globe ~ global, music ~ musical, nature ~ natural, universe ~ universal 등. 단어 끝에 /l/이 있으면 -al이 -ar로 바뀌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cell ~ cellular, circle ~ circular, family ~ familiar, miracle ~ miracular, muscle ~ muscular, pole ~ polar, sol ~ solar, triangle ~ triangular 등.

함부르크 사람들이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 먹던 그 방식을 미국 사람들이 '함부르크 식의' 즉 hamburger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은 이러한 유래와 상관없이 hamburger에 햄이 있다는 식으로 재분석해서 [ham + burger]라는 새로운 어근을 만들어냈다. 소위 민간어원(folk etymology)이라는 것이다. 민간어원은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새로 만들어진 어원들을 말한다. 가령 '구걸하다'란 동사 beg와 '거지'란 뜻의 beggar는 겉보기와

는 달리 beggar가 먼저 만들어졌고 약 100년 후에 beg란 동사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teach에서 teacher가 만들어지듯이 동사에 -er을 붙여 사람을 만드니까 beg에서 beggar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햄버거의 어원 Hamburger는 사실 마을을 뜻하는 고유명사 Ham, 도시를 뜻하는 burg, 그리고 형용사 어미 -er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여기서 -burg는 성채가 있는 도시를 말한다. 유럽

에는 성채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burg로 끝나는 지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북유럽의 소국인 Luxembourg, 독일의 Strasbourg와 Rothenburg, 오스트리아의 Salzburg, 우리에게 (셀부르의 우산)으로 익숙한 프랑스의 Cherbourg, 영국의 Edinburgh가 모두 성곽에서 발전한 도시들이다.

독일어 -burg의 흔적은 우리가 사는 매사추세츠의 지명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Attleboro, Boxborough, Clarksburg, 그리고 -burg의 변형인 -bury가 들어

가는 Duxbury, Newbury 등등.

도시에 사는 사람을 bourgeois라 하고 그 집단을 bourgeoisie라 한다. 반면에 prol-은 '아이'를 Ent하므로 proletariat는 재산이 없고 오로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국가에 기여하는 계층 즉 '무산자'를 가리킨다. 역사발전에서 따라 상업을 중심으로 한 신흥도시들이 생겨나면서 citizen이란 개념이 생겨났고 부르주와라는 개념은 성곽거주민이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특정한 기득권층을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로 축소되었다.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여신, 부제는 (1830년 7월 28일): 7월혁명을 기념, 1830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이눔이(Enop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탈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4 years old - 8th grader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5 & 1/2 Saturdays)
 Regular Classes:
 \$315 (one child)
 \$590 (two children)
 \$78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95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8, 2018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30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8-2019 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성양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storal Center Church

2018년 6월10일부터 9월2일까지
주일 미사 (Sunday)
 오전 7시 30분 (Korean)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30분 (Korean)
 (7월 첫 주부터 한시적으로 11시로 변경)
 오후 4시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뒤임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용직 전통상 대어 (배양산, 동파)
 전국 최대 어 가공기업 동정방 전통상과,
 수년간 내 바구니에 담긴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히트론스 16주년대잔치

파나소닉 MA70 특별세일!

정령의 찬신

선착순 30대

하루 카피한잔 값으로 고급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2.9 /월

Reg ~~\$7,000~~ **\$81** /월 60개월 + Tax

미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히트론스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INADA DREAMWAVE
\$250 /월 36개월 + Tax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뇨병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PANASONIC MAJ7
\$167 /월 60개월 + Tax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명품마사지의자
INADA NEST
~~\$2,900~~ **\$6,000**
24개월 + Tax

명품마사지의자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 Tax

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

OREST OS 5000
\$114 /월 48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6,900~~ **\$4,500**
24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8,700~~ **\$6,200**
24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5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60년 전통의 미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집침문화의 혁명 모넬베드 출시

magniflex

어떤상황에서도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인체공학 의자

미동체어

사람을 중심으로 의자를 만든다!

미동체어의 기술은 장시간 앉아 있는 회사원, 학생에게 자세를 유도/개선합니다. 슬라이딩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나쁜 자세를 잡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Wing Mechanism** 상체와 허벅지 사이를 연결 7종의 탄성 코팅을 사용하여 등허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Sliding Mechanism** 허벅지 관절이 어느 위치에 앉더라도 움직이지 않게 인체의 자세를 위한 수직으로 10cm 이상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동체어 입하 Special Price ~~\$890~~ **\$599**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만린도넛 매장 옆) **201-941-0010**

김윤석X주지훈 '암수살인', 10월 초 개봉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이 10월 초 개봉한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을 다뤘다.

그간 이 영화는 강렬한 제목과 궁금증을 일으키는 소재로 관심을 모았다. 감옥 속에서 퍼즐처럼 추가 살인의 단서를 풀리며 형사를 도발하는 살인범과, 실체도 없고 실적도 고과에 도움되지 않는 사건을 쫓고 있는 형사. 범인 검거보다 이미 잡힌 범인의 자백에 따라 피해자와 사건 자체를 찾아야 하는 '암수살인'은 한국 범죄 장르 사상 가장 어려운 미션을 따라간다.

살인범 태오의 진술만 믿고 마약수 사대에서 낚신 형사과로 전출을 자처, 동료 형사들 사이에서도 외면 받으며 신원도 모르고 시체도 찾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추적해가는 집념의 형사 형민은 김윤석이 그간 선보였던 형사 캐릭터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암수 사건을 향한 집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완



성된 인간미 가득한 형사로 돌아온 김윤석이 선보일 새로운 얼굴은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김윤석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심리전을 벌일 살인범 강태오는 '신과 함께' 시리즈와 '공작'으로 개봉 있는 연기력은 물론, 흥행력까지 갖춘 대세

배우 주지훈이 맡았다. 독보적인 이미지로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온 주지훈은 살인마에 대한 통념을 깨는 역으로 관객들을 다시 놀라게 할 예정이다.

eujenej@news1.kr



유지태X이요원 첩보멜로 '이몽' 韓中 합작 확정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중국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 회사 항주 자펑픽쳐스 유한공사(대표 우자펑)가 드라마 '이몽'에 합작 투자를 확정했다.

드라마 '이몽' (극본 조규원/연출 윤상호/제작 이몽 스튜디오 문화전문회사) 제작사 이몽 스튜디오 문화전문회사 측은 20일 "중국의 항주 자펑픽쳐스 유한공사가 '이몽'에 합작 투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몽'은 일제강점기 경성과 만주 그리고 중국 상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첩보 멜로. 일본인에게 양육된 조선인 외과의사 이영진(이요원 분)과 독립투쟁의 최선봉이었던 비밀결사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유지태

분)이 상해임시정부 첩보요원이 되어 태평양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활약하는 블록버스터 시대극이다.

유지태는 남자주인공 '김원봉'역을 맡았다. 김원봉은 불 같은 가슴과 거침없는 행동력을 가진 의열단 단장 '김원봉'역, 이요원은 낮에는 외과의사, 밤에는 독립군 밀정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여인 '이영진'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두 사람의 불꽃 같은 삶이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모아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일제강점기 첩보 멜로 '이몽'은 2019년 전 세계 방송 예정.

ichi@news1.kr

8월 26일 - 9월 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p> <p>●운수: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소띠 행운이 함께 하고</p> <p>●운수: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9, 1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범띠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p> <p>●운수: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금전: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 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p>
<p>토끼띠 집고 넘어가야</p> <p>●운수: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자금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집고 넘어가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31일 길일, 30, 1일 주의.</p>	<p>용띠 활기를 찾게 되는</p> <p>●운수: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전: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회소식이 따르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1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뱀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p> <p>●운수: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금전: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애정: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0, 31일 길일, 26, 1일 주의.</p>
<p>말띠 부지런히 노력해야</p> <p>●운수: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금전:돈이란 없다고 있고 있다고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30일 길일, 27, 28일 주의.</p>	<p>양띠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p> <p>●운수: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씀씀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8, 31일 주의.</p>	<p>원숭이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p> <p>●운수:올곧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금전: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닭띠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p> <p>●운수: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금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나다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정: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1일 길일, 26, 27일 주의.</p>	<p>개띠 시야가 환해지면서</p> <p>●운수: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전:기본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애정: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돼지띠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p> <p>●운수: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동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정: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1일 길일, 28, 2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영어 통역해 주실 분 구합니다.
T. 781-953-5816

8/17
캠브리지에 위치한 작은 한국식당에서 성실이 일하
실분을 구합니다. 월,수 (근무시간: 10:30-20:30)
Email, kksfoods47@gmail.com

"승리의 역사"...조인성X박성웅 <안시성>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
자 = 소재부터 목직하다. '안시
성'의 감독 및 배우들이 영화의
스케일과 액션 등에 대해 말하
며 자신감을 보였다. 과연 이 영
화가 쟁쟁한 경쟁작이 즐비한
추석 흥행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준다.

고구려는 사료가 많지 않아
사극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시
대인 게 사실이다. 김 감독은 고
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
실히 고증에 따랐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방의
자율성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영화의 강점에 대해 "
액션 블록버스터다. 반드시 극
장에서 봐야할 영화로 손색이
없어서 자신있다"고 소개했다.

'안시성'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영화다. 5천
명인 전부인 안시성 고구려군이
20만 당나라 대군과 맞서싸우면
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조인성이 안시성을 지키는
성주 양만춘 역을, 남주혁이 안
시성 출신 태학교 수장 사물 역
을 맡았다. 또 박성웅이 고구려
를 손에 넣으려는 당나라 황제
이세민, 배성우가 안시성의 등
직한 부관 추수지, 엄태구가 안
시성의 기마대장 파소 역을 맡
았다.

더불어 김설현이 백발백중
수노기 부대 리더 백하, 박병은
이 날렵한 안시성의 환도수장
풍, 오대환이 안시성 도끼부대
만형 활보, 정은채가 고구려의
미래를 보는 신녀 시미 역을 맡
았다.

조인성은 '더킹' 이후 '안시성'
'을 차기작으로 선택한 것이 고
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 때문이
었다면서 "국사 시간에 배웠던
양만춘 장군에 대해 호감도 있
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다면
새로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
는 기대감이 있었다. 도전의식,
이런 것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실제 역사를 다뤘다는 점에



서 이 영화는 '남한산성'과 비교
되기도 했다. 김광식 감독은 "남
한산성'은 싸울까 말까 하는 대
의명분에 대해 토론하는 영화다
. 우리 영화는 공성전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전투 상황을 충실

하게 담은 실제적인 액션, 전쟁
영화'라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한편 '안시성'은 오는 9월 19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유시민 · 김영하 그대로" '알쓸신잡3' 잡학박사 라인업 공개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알쓸신잡3'의 멤버들이 공개됐
다.

'알쓸신잡'은 분야를 넘나드는
잡학박사들의 지식 대방출형 연, 국
내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이
야기를 펼쳐 딱히 쓸데는 없지만 알
아두면 흥이 나는 신비한 수다 여행
프로그램으로 방송 때마다 시청자
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시
즌1, 10월 시즌2가 방송되는 등 tvN

시리즈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즌3에는 유시민 작가가 중심
을 지키는 가운데, 김영하 작가가
다시 합류했다. 새로운 잡학박사로
는 김진애 도시계획학 박사과 김상
욱 물리학 박사가 출연한다.

'알쓸신잡3'는 해외 촬영도 진행
한다.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피
렌체,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여행한
다.

ichi@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견디는 방식(5)

난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엄마를 뒤에 남겨두고 운동장을 달려 나와 버렸다. 그 뒤로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원서를 쓰지는 선생님의 말에도 묵묵부답이었고 엄마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도 대답을 안 했다. 엄마는 할 수 없이 학교에 다시 가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상업학교 주야간을 다 써 넣었다. 난 시험을 아무렇게나 봤다. 야간은 돈만 내면 다닐 수 있었으므로 난 응시하고 시험을 봤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상업학교 야간부 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했나? 공부하지 않았다. 주판알이나 튕기고 손익계산서나 뽑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수업시간에 난 대놓고 소설책이나 읽었다. 선생들은 때리고 어르고를 두어 번 한 후 포기했다. 내가 수업을 제대로 들은 과목은 국어와 국사였다. 그 두 과목은 잘 듣고 시험 때가 되면 공부도 했다. 국어 선생은 내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를 읽고 수필을 읽을 수 있는 교과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다. 국사 공부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었다. 선생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억했다. 연대순으로 왕, 경제, 문화를 도표로 꼼꼼하게 만들어 보는 것으로 나의 공부는 다 한 것이었다. 그렇게 도표 하나를 만들면 웬만한 것은 다 기억이 났다. 국어와 국사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였으나 다른 과목은 거

의 바닥을 기어 다녔다. 한 번은 수학 선생이 새로 왔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옛된 선생이었고 얼굴은 반질반질하게 잘 생겼다. 난 호기심이 일었다. 내가 수학 공부를 이제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한 공부 한 달 만에 수학 시험을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본 것이다. 난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대충 살았다. 오빠들은 대학을 버졌이 다녔고 엄마와 아버지의 등골은 계속 휘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늘 자랑스럽게 때로는 거만한 자세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곤 했다.

“정희야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런지 몰라요. 완전히 뼈투로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인 건지. 도대체 제 오빠들은 처박혀 공부만 하는데 저년은 완전 밥충이처럼 제멋대로 학교를 다니니...”

엄마가 투덜거리며 마당에서 수도꼭지를 고치는 아버지를 향해 말을 하자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말을 뱉어 낸다.

“시집만 잘 가면 돼야. 얼굴은 반반하잖아”

나는 속으로 제기랄 제기랄 제기랄 제기랄 하며 연필을 푹푹 분지르고 있었다. 군대에 갔던 큰 오빠가 휴가 나와서 나를 데리고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교정을 구경시켜 주었다. 오빠가

내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한숨을 쉬더니 나를 데리고 남산 도서관을 갔다.

“정희야 시간 될 때마다 여기 와서 놀아라”

난 그것이 오빠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빠가 뭘 원하는지도 알았다. 오빠가 보여준 대학교 교정과 도서관의 분위기만으로 내 안에 고여 오지 못한 설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고개만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내 어깨를 계속 감싸고 있던 큰 오빠가 다짐을 한다.

“정희야 오빠가 제대하고 공부 마치면 너 대학 보내 줄게.”

난 그 말에 몇 년 동안 악지를 부리던 내 행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산도 2급, 부기도 2급을 땀고 다른 과목의 공부도 열심히 했다. 졸업 후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던 나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난 내가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상업학교 야간을 나온 나는 일 년을 공부해서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용어가 처음이고 학원은 기초를 가르치지 않는다. 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몽땅 날려먹었기 때문에 학원의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서너 달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리고 틈틈이 쓰던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시는 돈이 안되고, 소설을 쓰기에는 뭔가 열등감이 작용을 했다. 나는 돈이 될 수 있는 드라마를 쓰기로 한 것이다. 책은 ‘시나리오 기법’ 딱 한 권 읽어보고 시작했다. 소설을 많이 읽은 탓에 기술적인 문제만 조금 문제가 되었지 내용 전개는 막힘없이 해냈다. 내 극본이 당선되고 내 극본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난 고작 스펀셋이었다.

은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다녔던 증권회사 앞 건물, 전자회사 홍보부에 취직이 되었다. 내가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자취를 하며 드라마 대본과 함께 뒹굴던 그 시점에 은미는 내가 떠난 종로로 출근을 하게 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넷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티보가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

-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 초기 자본 없이 창업 가능
- 전화 한대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 가능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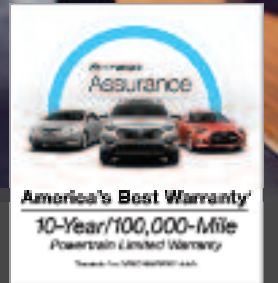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J1 VISA 리스 할부 가능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18,175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145



2018 Hyundai Tucson SE

Lease: **\$10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5,225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7,820



2018 Hyundai Kona SE

Lease: **\$13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3,875



2018 Hyundai Tucson Limited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2,370



2018 Hyundai Santa Fe SE

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34,990



2018 CONSUMER SATISFACTION AWARD

DealerRater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9/04/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신영의 **세상 스케치**

65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만년 소년 '짱구'님을 보내드리며...

향년 76세(1942년생)의 짱구님!! 지난 8월 15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8월 18일 매사추세츠주 뉴튼 소재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있었다. 보스턴과 근교의 한인들에게는 40여 년을 회계사 일을 하고 계셨으니 김양일 회계사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스턴산악회 산우들에게는 회계사 김양일(세례명:요한)님 보다는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산사람 '짱구님'으로 더 익숙하고 오래 기억될 분이시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짱구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시던 분이셨다.

'짱구'는 김양일 님의 '닉'이다. 보스턴산악회에서 각자 자신의 이름 대신 '닉네임'을 하나씩 만들어 서로 부르고 있다. 언젠가 보스턴산악회 회장(김상호)님이 '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자연과 함께 만나며 서로 자연의 한 사람으로 만나고 나누자는 것이다. 세상의 학식과 지위 높낮이를 떨어낸 채 그저 자연과 더불어 함께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누림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래서

일까. 산악회 모임을 통해 산을 오르내리며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편안해 좋다. 그저 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만나는 이유일 것이다.

짱구님은 1970년 초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으니 참 오랜 세월 타국에서 사신 분이다. 이분에게서는 어쩌면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남들이 가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이류가 아닌 '일류'의 자리에 계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학식들 그러나 떠나서 일 앞에서야 그것이 뭐 그리 소용이 있을까. 짱구님을 뵈 때마다 참으로 박식하신 어른 앞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지루하지 않았다. 당신이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눠주시곤 하셨었다.

장례미사에서 정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짱구님은 사람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하셨던 삶의 멋과 맛을 아는 분이셨으며 예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나누고 누렸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세상 나이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른 대접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나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음악과 문학과 예술을 통해 느꼈던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시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말간 영혼으로 불러주시던 짱구님의 그 삶의 노래가 말이다. 산을 오르실 때는 어느 젊은이들을 쫓기는 어려웠지만, 당신의 보폭만큼만 걸으며 깊은 산속에서 계절마다 봄이면 꽃피고 여름이면 무성한 숲 그리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얀 산천을 통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셨을까.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Mt. Washington을 힘들게 오르시며 정상에 올라 그렇게 기뻐하시며 감동하시던 짱구님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저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올 뿐이다.

산을 통해서 짱구님을 만났던 인연에 감사하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누었던 이야기

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나. 많이 서운하다. 음악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그림의 시대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와인을 산우들과 나눌 때 그렇게 즐거워하셨는데 많이 섭섭하다. 그래도 그동안 그 깊이 있는 예술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위안으로 삼는다. 그 어른을 통해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그것은 자연이 있어 가능했으며 예술이 있어 가능했으리란 생각을 해본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김양일(짱구)님은 '만년 소년'이셨다. 참으로 맑고 솔직한 그런 꾸밈없는 '소년'이셨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더욱 개구쟁이 소년처럼 좋아하시며 행복해하시던 분이셨다. 산을 오르는 이유는 정상에 오르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정상에 올랐다 내려온 아래 땅이 진정한 정상일지 모를 일이다. 짱구님을 보내드리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짱구님은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보스턴산악회' 우리들의 영원한 '만년 소년'으로 남으셨다. 짱구님, 하느님 품 안에서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한담객설閑談客說:
반숙半熟과 완숙完熟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거운데, 식으면 죽는다. 한국 청와대 참모진에 젊을적 삼팔육 세대가 진출한 모양이다. 그들도 이제는 오십줄을 넘어섰다. 오팔륙五八六이 된거다. 공자의 지천명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만한 연배일터. 잘 삶은 계란 마냥 완숙한 경지에 들어 섰을 것이란 말과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정을 버려서는 안될텐데, 나랏일을 대충하리라 믿지 않는다. 모두 완숙되시라.

청년들의 열정과 의협심을 믿는다. 한창 싱싱한 모습에 저돌적이고, 앞뒤가지지 않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깊고 넓은 통찰력엔 고된 훈련이 더 필요 할게다. 더 깊어야 하고 더 넓어야 하며 더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박두진 시인 목소리이다.

다만
끝없이 일렁이는
끝없이 정렬하는 무한 넓이
무한 용량

푸르디푸른
너 천길 속의 의지
천길 속의 고요로다.
(박두진, 청년의 바다 중에서)

쌀포대를 옮긴 아이는 그냥 마루바닥에 패대기 쳤다.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건 내 일이다. 나머지 정리는 아내의 몫이 되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내 팔에 힘이 빠졌다만, 미소가 비어져 나왔다. 아이야, 허리 다칠라, 너무 힘쓰지 마라. 내 걱정은 어디서건 찾아 볼 수 없었다. 남편 몸격정은 이미 우선순위에서 한창 밀려져 버린거다.

'남은 것과 싸우는 동안에 새것도 그대로 남아간다. 의義도 권력과 결부되면 불의不義를 닮아간다.' 조지훈 선생의 말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계란후라이라면 'sunny side-up' 이라야 한다. 삶은 계란은 완숙完熟이라야 한다. 이 건 내 입맛이다.

아내가 시장을 보고 왔다. 차 트렁크에서 짐을 내려야 했다. 쌀포대라면 무거워 나도 힘에 겹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번쩍 들어 옮겼다. 아무것도 아닌냥 말이다. 쌀포대 옮기는 아이의 근육질 팔뚝과 울퉁불퉁한 종아리는 아름답다. 그에게서 풍기는 젊은 사내의 냄새는 오히려 달콤하다. 승글게 걷자란 턱수염은 오히

려 싱그럽다. 뿔어져 나오는 강렬한 힘인게다. 어찌 주체할수 없는 젊은 힘은 쌀가마나라도 번쩍 들어 옮길만 한거다. 아이는 사내 냄새 풀풀 풍기는 청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숙일 게고, 완숙은 아니다.

김형석교수가 했던 말이다. 인생 대충 살아라. 이 말에 잠시 멈칫했다. 아직 젊어 혈기 방성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엔 과하다 싶었기 때문이다. 젊어서는 여전히 피끓는 젊은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피血는뜨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나와너' '나와 그것'

2018년 8월, 트럼프를 향해 막나가는 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언히지드(unhinged)라는 책을 출간하며 트럼프를 맞대놓고 싸우고 있는 오마로자 매니겔트 스탈위스(Omarosa Manigault)를 말한다. 'unhinged' 라는 뜻은 '흐트러지다, 착란시키다, 혼란시키다'는 뜻이다. 오마로자는 그녀의 책을 통해 트럼프는 사람들의 정신을 착란시키는 나쁜 사람임을 세상에 공표하고 나섰다. 그녀는 트럼프의 인기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 세번째(2004, 2008, 2010)이나 불림을 받을 정도로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었고, 급기야는 트럼프의 대선 캠프를 거쳐 백악관에 입성 한 뒤 유일한 흑인여성 참모로 대외협력국장(director of Communications for the office of public liaison)이라는 고위직을 얻어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2월 백악관은 트럼프의 총애를 들킨 그녀를 전격적으로 사임시켰다.

오마로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올해 2월, 그녀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은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책 출간을 앞두고 이번 달 12월 자신에게 하고 통지를 하는 캘리비서실장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NBC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뱅크 부루니'는

모방꾼이 스승의 가르침으로 스승을 공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설득력있는 견해이다. 트럼프의 쇼였던 '어프렌티스'에 세번째나 출연을 하며 트럼프만의 싸움 기법을 터득하였던 그녀는 그의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로자는 '어프렌티스'에 출연을 하며 현란한 말솜씨, 상대의 약점을 잡아 뒤통수치기, 이간질시키기,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이기, 노골적인 막말하기 등으로 '미국이 중요하는 여성'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유명세를 탄 이유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경쟁하는 출연자들과 특하면 말싸움을 하고 합숙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쁜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의아스럽게도 오마로사의 '악녀'의 명성은 시청률을 고도로 상승시켰고, 그녀로 하여금 여러가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게 하였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최고의 거친 막말꾼' 캐릭터와 오마로자의 '최고 악녀' 캐릭터에 환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위해서 좋은 사람보다는 기능적인 사람을 선호하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에 의해 결정하였던 이 못된 캐릭터 덕분에 백악관에 입성 할 수 있었고, 유명세를 탔고,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의 전형적인 예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 독일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인간이 갖는 두 종류의 관계를 말한다. '나-너'와 '나-그것'의 관계이다. '나'에게는 '위대한 나'와 '비참한 나'가 존재한다. '위대한 나'는 필연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있다. '비참한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며 구속된 사고를 갖고있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는 비참한 나를 극복하여 위대한 나를 인식하면서 너의 위대한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와의 관계가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나-너의 관계는 마음을 주고 받는 사랑의 관계이고, 상대방의 존재를 빛나게 한다.

반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쉽고 나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다. 즉, 상대방이 더 이상 필요한 기능이 되지 못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필요 없어진다. 나만이 오직 필연적인 존재성을 가져야 하고, 나만이 오직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고, 나만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나만이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다. '나-그것'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돈', '명예', '성공'의 '그것'과의 관계이다. 사람을 단지 자신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계이다.

따라서 '나-그것'의 관계는 자신마저 '그것'으로 만들며 도구화시키고만다. 오마로자의 배반으로 트럼프는 약이 올라 자신의 트위터에 온갖 비방을 한다. 그럴수록 오마로자는 트럼프의 비리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책이 더 팔리게 하려는 마케팅의 수단일 것이다. 사람이 아닌 '그것'을 더 사랑하는 오마로자와 트럼프의 관계의 끝자락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의 끝이 어떠한 형태를 보일지 예측하기 쉽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가차없이 버리고 버려지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이 그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이다. 부모와 형제, 친구의 소중한 관계보다 일종독에 빠져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야망,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암체친구, 좀더 자신에게 상품가치를 주는 스펙 좋은 배우자감에 오랜 연인을 가차없이 버리는 비정한 애인, 만나도 만나도 겉자리만 맴도는 정이 쌓여지지 않는 관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도 혹시 오마로자와 트럼프의 '나와 그것'의 관계에 더욱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www.ksneusa.org (1975~2018 개교 43주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18-'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부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을학기 일정: 2018.9.15 - 2019.1.19 (설날잔치 및 증강식)

- * 1차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08일(토) 오전 9시 반(강당)
- * 2차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15일(토) 오전 8시 반(강당)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 병아리(2.5세) 기초1(해님 & 달님반), 불반(이중언어과정-1)→선착순 등록

◆ 학교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등록기간: 8월 31일까지 (신입생)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1)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음악교육(1-3반), 작문교육(1-3반)•서예반•한국무용•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교육 및 기타

(2)오후반: 12:45pm-1:45pm: 미술1반•민화반•발레•태권도•사물놀이•서예반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1) 오전: \$340/1명 *\$620/2 *\$770/3 (2) 오후반: \$130/1 (3) 병아리반:\$180

(2) 자녀가 이중언어반에 등록하고 부모가 성인반 등록: 50% 할인

(3) 자녀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1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등록 문의 & 교사자원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508) 842-1551(Fax)
 ◆ Email: ksneusa@verizon.net / 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함께 수고하실 교사를 모십니다 ◆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모시는 부문: 유아교육•한글•문화•역사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2018 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

*한글이름:(1)_____ (2)_____ (3)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8년 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병아리반: \$180)

오후반 수업료 \$ _____ (1st Choice: _____ 반) (2nd Choice: _____ 반)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재능기부와 후원(Donation)를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원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편입생 소집일(오리엔테이션 & 반편성) : 9월 8일(토) 오전 9시 반 & 9월 15일(토) 오전 8시 반 → 학교 강당 ★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8) 재정설계사의 진실

말도 익숙지 않은 낯선 땅에 와서 힘들게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은행 저축으로 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일한 만큼 긴 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주식 투자를 고려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은퇴 전문설계사, 투자 재정설계사, 등을 찾아갑니다.

재정설계사를 만나면 친절하고 믿음이 가지만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Best Interest)을 생각해서 투자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하는지?' 가 매우 궁금합니다.

투자자에게 반가웠던 소식은 작년(6/9/2017)에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 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신용의무(Fiduciary Duty)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주식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일한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는 이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수료나 비싼 투자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의 고통과 수고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던 법안이 결국에는 또다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신용의무 법안이 백지화된 것입니다.

재정설계사가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높은 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금융상품을 판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변동 어뉴어티(Variable Annuities), 로우드 뮤추얼 펀드(Load Mutual Funds), 비공개 부동산

투자(Non-traded REITs), 등입니다. 이러한 투자 종목들은 재정설계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뉴어티의 평균 수수료는 8%, 뮤추얼 펀드는 6%, 그리고 비공개 부동산 투자는 무려 13%입니다. 높은 수수료와 투자 경비는 주식시장이 상승해도 나의 투자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보다 적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는 재정설계사에게 수익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와 호화로운 가족여행을 제공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정설계사는 당연히 돌아오는 수입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재정설계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월스트리지(Whistle blowers detail Wells Fargo wealth management woes, WSJ, July 27, 2018)가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에게 어뉴어티를 팔아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사장(Chairman's Club), 미식축

구 결승전(Super Bowl) 공짜 표, 등을 받아 온 가족이 휴가를 갑니다. 어떤 재정설계사는 이미 판 어뉴어티를 다시 팔고 새롭고 더 좋다는 어뉴어티에 재계약함으로써 수수료를 다시 받는 잘못으로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 벌금 3.7 million을 받았다는(Massachusetts fines LPL financial over Annuity sales, Securities Lawyers, May 13, 2017) 기사 내용입니다.

신용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후 금융기관(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면 됩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고객의 돈을 운용하며 신용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에 신용의무가 있는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도 얼마나 성의껏 신용의무를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40 화랑세기花郎世紀, 9세 풍월주風月主 비보랑秘寶郎(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풍유만을 즐기던 미실의 동생 미생이 아닌 문노에게로 이어졌다. 그리고 582년, 문노가 이 임하면서 자신의 수제자인 비보랑에게로 풍월주 지위를 잇게하였다.

비보랑은 기사생己巳生이니가 549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비대전군이다. 비대전군은 법흥왕과 옥진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비보의 어머니는 실보낭주이다. 실보의 어머니는 삼엽공주이며 아버지는 아시공이다. 삼엽은 법흥왕과 벽화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법흥왕의 외손녀인 실보와 아들인 비대공이 혼인하여 비보랑이 태어났다. 2세 풍월주를 역임한 미진부공이 비보랑의 외삼촌이다. 비보의 외조모 삼엽은 아시공에게 시집가서 미진부, 골보, 실보낭주, 말보를 낳았다.234) 549년생인 비보는 설원랑과 동갑으로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다. 설원은 나중에 설화랑으로 불리었고, 아버지는 설성이며 어머니는 금진낭주이다. 금진은 옥진의 동생이다. 금진도 언니 옥진과 함께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출궁당했다. 그러자 그녀를 너무나 사모하여 5년간 발원기도를 한 구리지가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혼인하여 살면서 토함과 새달 그리고 5세 풍월주 사다함을 낳았다. 그 후 548년 구리지는 독산성전투에 참전하였다가 거기서 전사하였다(삼국사기권4, 진흥왕9년 2월). 그러자 이번에는 구리지의 용양신으로

있던 설성이 금진과 동침하여 549년 설원랑이 태어났다. 비보와 설원은 함께 노래와 옥적玉笛(피리)을 배웠다. 그런데 비보는 소질이 없었다. 반면에 설원은 아버지 설성의 피리를 이어받아서인지 왕성에서 따를자가 없었다. 또한 비보는 문노의 수하에 들어가서 격검술을 배웠다. 가장 뛰어난 수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문노가 선화仙花(호국선 화랑)와 풍월주가 되자 부제로 발탁되었다가 문노를 이어 풍월주가 되었다. 그는 문노가 한것 같이 천한자들도 낭도로 받아드리고 약자들을 돕는데도 힘썼다. 그는 582년에 풍월주의 위치를 받았는데 3년간 재임하였다. 이임할때 많은 낭도들이 아쉬워했다. 화랑세기에는 이렇게 전한다.

[비보秘寶는 기사년생이고 임인년에 화랑의 주수가 되었다. 9세 비보랑은 비대전군比臺殿君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실보낭주實寶娘主인데 곧 미진부의 누이였다. 공은 설원공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함께 노래를 배웠으나 설원공에게 미치지 못했고, 피리를 배웠으나 역시 설원공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문노에게 나아가 검을 배워 마침내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어 문노를 힘써 보좌했다. 문노가 선화仙花가 되자, 그 공으로 그의 부제가 되었다. 이에 이르러 9세 풍월주가 되었다. 문노의 법제를 힘써 따르고 미천한 자를 발탁하고 약한 자를 구하는데 힘썼다. 낭도

를 나누어 보내어 변방을 지키는 이들을 위로했다. 당시 미생공은 설원공의 부제로 오랫동안 위에 오르지 못했다. 문노공이 이에 양위를 명했다. 공은 또한 3년간 재위하니 낭도들이 가까워했다. 때는 건복建福2년(585년) 춘정월이었다.]

234) 법흥왕은 벽화를 후궁으로 맞아드리면서 1세 풍월주인 위화랑의 충성을 확인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삼엽을 총애하는 신하 아시공에게 시집보내면서 좌우를 혼인관계로 공고히 하였다. 또한 삼엽은 진흥왕을 지지하여 아시공의 정치적인 기반도 확고히 다졌다. 당시 신라 제일의 미녀라고 기록된 벽화는 제21대 소지왕이 날이군(현 경북 영주)에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서기 500년). 그리고 그해 말 왕위는 지증에게로 이어졌고, 지증왕이 즉위하면서 태자 김원중(후에 법흥왕)이 벽화를 차지하였다. 위화랑과 벽화는 남매지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나무위키,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비즈니스 시작하기 (7)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기(Family employment)

이번주는 가족단위의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①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Family Employment)면제되는 고용관련 세금과 ②부부 공동사업(Husband-Wife Business)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Family Employment)할 때의 혜택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고용 관련 세금(employment tax) 중 FICA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와 연방실업세(FUTA) 및 주정부 실업세(SUTA)에 대해 혜택을 볼 경우가 있다.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이 어떤관계에 있는지 - 즉,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것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것인지 - 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배우자간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된 배우자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FICA Tax(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된다.

그렇지만 이경우에도 배우자의 '회사(Corporation)' 에 고용되거나, 배우자가 파트너인 '파트너십(partnership)' 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배우자의 급여에 대해 연방실업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경우는 자녀가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인 부모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운영하는 부모(이때 부모가 아닌 다른 파트너가 있으면 안됨)에 고용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때 고용된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및 연방실업세(FUTA)가 모두 면제되고, 자녀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면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지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된다.

다만, 이경우에도 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Corporation)' 나, 부모 이외에 다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예를 들면 부모외에 삼촌이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고용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및 연방실업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를 보자. 이경우는 부모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 나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야하지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된다.

MA 주 실업세
참고로 MA주정부도 부모에게 고용된

18세 이하 자녀, 배우자에게 고용된 다른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고용된 부모에 대해서는 주정부 실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에 대한 과세방법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중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자 형태와 ② 사업을 하는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가 단순히 도와주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은 과세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 유형은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하고, 두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로 과세한다.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이에 대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파트너십 계약이 없더라도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간주하여 파트너십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시 파트너십의 Form 1165를 사용해야 한다(자영업자 (Sole proprietor)의 Form 1040 Schedule C가 아님).

QJV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로 과세가능
그런데 부부공동사업자 중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사업자는 QJV(Qualified Joint Venture)로 보아 부부가 각각 자영업

을 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첫째; 오직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부부 둘만이 공동사업자의 파트너일 것

둘째; 부부는 둘 다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material participation). 단순히 공동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셋째; 부부 둘다 QJV로 신고할 것 넷째; 주 정부에 파트너십이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로 신고하면, 부부 둘 다 각각 독립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손익과 기타 모든 항목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 각각 별도의 Schedule C에 의해 보고된다. 그리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각각 별도로 계산하고 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게 된다.

이렇게 신고하면 기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파트너십이나 파트너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작성 등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소득계산시 자영업자에 고용된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나, JJV의 경우에는 각각 Schedule C 및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사회보장제도 공제되는 장점이 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BOSTON NEHEMIAH INSTITUTE

- BNI 평신도신학원은**
-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Boston Nehemiah Institute 선교원 주최

2018 BNI 선교의 밤 공개강좌

고향의
그리움으로
형성된
구약이야기
이민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서

- 강사: 김현철 교수 (Methodist Theological School in Ohio 구약학 교수)
- 일시: 2018년 9월 8일 오후 7:00
-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구약성서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 현실을 되새겨 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찾게 된다. 특히 자신들 조상들의 역사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사건에 영향을 받고 대처해 나가는 모습도 본다. 이번 강좌는 구약성서 본문들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 정체성, 비전"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자신들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갔는가, 그리고 위기와 갈등속에서 어떤 신앙의 비전을 지켜왔는가 등등의 질문을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구약성경의 이해에 폭을 넓히고 나아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및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 21세기 시대의 소명을 되찾아 보도록 한다.

강좌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Babysitter가 제공되며, 강좌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가을학기 과목 편성표

Central클래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래스 : 나사렛사람의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7:30-9:30pm	9/10-10/15	Central	한 눈에 보는 요한복음	김이근 목사
	10/22-11/19	Central	기독교 영성과 일상의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의 초대	윤경문 목사
화요일 7:30-9:30pm	9/11-10/16	North	출애굽기: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	이요한 목사
	10/23-11/20	North	우리가 믿는 것들: 사도신경을 통해 돌아보는 믿음의 길	최진용 목사

* Columbus Day 주간은 휴강합니다(10월 8일과 9일)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경주변 여행 주의사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민, 추방, 불법자 색출 등의 단어들은 이제 너무나 자주 들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으로 이민신분을 얻거나, 불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 쫓아내는 것에 대해 뭐랄까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사회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국경 근접지역에서 행해지는 불법검문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자들을 찾아내 추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검문과정이나 대상 선별과정에 인종적 선입견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생김새 때문에 범법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이러한 행위에 상처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들을 만날 수 만은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가 이사회에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신분을 증명할 서류들은 반드시 챙기는 것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분실했을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소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평소에 영주권을 지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영주권자들은 언제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검문 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다닐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국경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동양인이라 이유로 불법검문을 받고 신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 때 나를 왜 검문하는

지, 나를 검문하는 이유가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이었는지 등의 항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차후에 정식항의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항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부조리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여행 시 또는 국경근처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주권 (영주권자), 미국여권 (미국시민), 또는 I-94/여권 (비

자소지자) 등의 서류를 잊지 말고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문 받으실 때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생 많이 한다는 등의 격려가 도움이 됩니다. 완장찬 사람들에게 뭐라해봐야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일단 피해야죠. 단,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훗날을 기약해야겠죠.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눈 밖에 나는 거 아닌가 싶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를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 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제공하는 장소를 세입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세입자를 놓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건물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협상을 해서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서 협상 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

습니다. 먼저 무료 렌트 기간 (Free Rent Period)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게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크고 작은 공사를 통해 가게 구조와 인테리어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 세입자와 새 세입자의 업종이 다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에는 보통 장사를 할 수 없고, 장사를 못 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처음 몇 개월 동안 무료 렌트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고객 중에 새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고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협상하던 중, 입주하려는 가게 자리가 지난 2년간 임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였고, 이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한 결과, 6개월의 무료 렌트 기간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공동 구역 관리비 (Common Area Maintenance - CAM)도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CAM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모든 세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에 대한 관리비를 말합니다. CAM은 일반적으로 모든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각 세입자의 CAM 부담률은 자신의 가게가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전체 건물의 기준을 건물의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지, 건물 내에서 세입

자들에게 임대료로 나가는 면적만을 계산할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입자 김 씨가 임대한 가게의 면적은 500 제곱피트이고, 김 씨의 가게가 위치한 건물의 전체 면적은 5000 제곱피트, 그중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로 나가는 면적은 400 제곱피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CAM을 계산할 때 건물 전체 면적을 사용하면 김 씨가 부담해야 하는 CAM은 전체의 10%이지만, 임대료로 나가는 면적을 사용하면 김 씨의 부담률은 12.5%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점 사용권 조항도 협상 시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임대하려는 가게가 쇼핑몰 안에 있다면, 그 쇼핑몰 안에는 세입자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세입자는 들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20여 개의 가게가 입점할 수 있는 쇼핑몰에 뷰티서플라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같은 쇼핑몰에 또다른 뷰티서플라이 가게가 입점하게 되면 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하려는 가게의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는 “as-is”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를 점

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시작된 후에는 보통 세입자가 HVAC (냉난방 환기) 시스템을 보수/유지를 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HVAC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내에 미국 장애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에 위반되는 구조물이 있다면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입자로서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조항들은 많습니다. 많은 건물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상에 임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로서 새로운 가게를 임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협상경험이 풍부한 상법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93845027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